주전 확실한 KIA, 치열한 백업 경쟁

주전-비주전 격차 커…27명 엔트리 중 주전 9명 제외 6자리 불과

전지훈련·시범경기 통해 김기태 감독에 어필해야 기회 주어져

KIA 타이거즈는 주전이 확실한 팀이다.

이명기-김주찬-버나디나-최형우-나지완-안치홍-이범호-김민식-김선빈의 베스트 9은 10개구단 중 최강이라 할 수 있는 공격력을 자랑한다.

지난해에도 KIA는 3할2리의 팀타율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사실상 주전경쟁이 없는 팀이다. 그래서 전지훈련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분위기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KIA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주전과 비주전의 실력차이다. 그래서 주전들의 체력 관리와 부상 관리가 중요하다.

올시즌엔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클까. 현재 상황에선 야수조의 1군 엔트리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인다.

27명의 엔트리는 보통 투수 12명에 포수 2명, 야수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포수와 야수의 정원이 15명이다. 이중 9명의 주전을 빼면 백업 요원의 자리는 6자리에 불과하다.

유력 후보들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내·외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했던 베테랑 서동욱은 대타와 대수비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다. 주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빠졌을 때 선발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다.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최원준도 대타와 대수비로 나갈 수 있다.

LG에서 옮겨온 정성훈에게도 기회가 있을 듯. 지난해에도 타율 3할1푼2리(276타수 86안타)의 좋은 타율을 보였다. 특히 왼손 투수에 타율 3할2푼3리(96타수 31안타)로 좋아 왼손투수를 상대할 때 필요하다.

외야는 지난해 김호령이 대주자, 대수비 요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군입대를 했다.

이 자리를 삼성에서 트레이드로 온 이영욱이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격력도 어느정도 갖췄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기용할 수 있다. 2차 드래프트로 영입한 유민상도 타격이 좋기 때문에 중용될 수 있다.

포수는 주전 김민식에 한승택과 백용환이 대기한다. 지난해엔 주로 한승택이 백업으로 1군에서 뛰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전지훈련과 시범경기를 통해 김기태 감독에게 확실히 어필을 해야한다. KIA의 1군 전지훈련에 포함된 김지성 노관현 최정민 황윤호 등에게도 전지훈련과 시범경기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도 발이 빠르고 수비가 좋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

1군에는 빠진 김주형 신종길 등 언제든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선수들도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자리가 많지 않기에 더욱 노력해야하는 상황이다. 몇 개 없는 자리를 위한 치열한 자리싸움이 시작된다. 일단 1군에서 뛰어야 주전 자리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신욱 2골에도…한국, 자메이카와 무승부

신태용호, 2-2 비겨…오는 3일 라트비아와 마지막 평가전

공격은 괜찮았지만 헐거운 수비가 아쉬웠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린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서 2-2로 비겼다. 사흘 전 몰도바와의 새해 첫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둔 한국은 전지훈련 1승1무를 기록했다.

김신욱(전북)은 팀의 두 골을 모두 책임졌다. 몰도바전에 이어 팀의 모든 득점을 넣으며 신 감독의 눈도장을 찍었다. 수비는 여전히 신통치 못했다. 완전치 않은 전력의 자메이카를 맞아 두 골을 헌납하면서 의문부호를 남겼다.

한국은 김신욱과 이근호(강원FC)를 최전방에 둔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손준호(전북)와 정우영(비셀고베)이 중원을 형성했고, 장현수(FC도쿄)와 윤영선(상주상무)이 센터백으로 호흡을 맞췄다.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빼앗겼다. 장현수가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면서 상대에게 손쉬운 기회를 헌납했다. 데인 켈리가 이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왼발슛으로 한국의 골문을 열었다.

한국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전반 7분 최철순의 크로스를 이재성(이상 전북)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전반 17분 손준호의 오른발 슛도 득점과는 거리가 멀었다. 운도 따르지 않았다. 전반 29분 김진수의 패스를 받은 이재성의 헤딩슛이 골대에 맞고 나왔다.

전반을 뒤진 채 마친 한국은 후반 10분 만에 균형을 맞췄다. 최철순-김신욱으로 이어지는 전북 듀오의 합작품이었다. 최철순의 정확한 패스에 김신욱이 머리를 갖다댔다. 공은 골키퍼가 손을 쓰기 어려운 코스로 향했다. 스코어는 1-1.

김신욱의 진가는 8분 뒤 다시 한 번 발휘됐다. 이번에는 정우영이 미드필드 진영에서 올려준 공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번에도 큰 신장을 활용한 헤딩이 통했다.

리드는 금세 막을 내렸다. 후반 27분 말리크 포스터가 마크가 느슨해진 틈을 타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수비수들이 공간을 내주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한국은 후반 40분 김승대(포항)와 이승기(전북)의 결정적인 슛이 모두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3일 라트비아와 전지훈련 마지막 평가전을 갖는다.

뉴시스

"평창, 역대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 될 것"

美 시사 주간지 타임 예상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역대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타임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앞서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과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은 너무 따뜻해서 불만을 자아냈다. 그러나 올해 올림픽은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썼다.

타임에 따르면 가장 추웠던 동계올림픽은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대회다. 당시 영하 11도를 기록했다. 타임은 "평창의 2월 예상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은 영하 14도(화씨 7도) 내외"라고 전했다.

평창의 추위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됐다. 특히 실외에서 열리는 개·폐회식의 추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적잖았다.

"밴쿠버·소치, 너무 따뜻해 불만"

"실외서 개최 개·폐회식 우려도"

"외지인 이곳 얼마나 추운지 몰라"

타임은 "평창은 한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고, 올림픽 개회식 개최지 중 가장 추울 지역"이라며 "고도가 700m 정도로 높고, 만주 평야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강풍으로도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6명이 저체온증에 걸렸다. 개회식에는 3만5000명이 찾을 예정"이라며 "이 경기장은 중앙난방 시스템과 지붕이 없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평창의 추위와 관련, 지역민도 인터뷰했다. 이 주민은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껴입는 것 뿐"이라며 "외지인들은 이곳이 얼마나 추운지 모른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추위"라고 말했다.

밴쿠버올림픽과 소치올림픽 때는 평창올림픽과 달리 기온이 예상보다 따뜻하다고 걱정들이었다. 눈이 녹는 바람에 설상 경기 운영에 대한 걱정이 이어졌다. 소치 대회 때에는 눈을 저장해뒀고, 밴쿠버 대회 때는 눈이 모자라 스키 슬로프에 진짜 눈과 인공 눈을 섞은 짚더미를 깔기도 했다.

타임은 "어떻게 선수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할까"라면서 "미국 대표팀은 배터리가 장착된 난방 패딩을 입는다"고 소개했다.

뉴시스

최진철·노상래·박건하…축구대표팀감독 선임위원 됐다

국가대표감독선임위, 5개 소위원회 18명 구성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진철 프로연맹경기위원장, 노상래 전 전남 감독, 정재권 한양대 감독, 박건하 전 서울이랜드 감독

축구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이 결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김판곤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 이임생 위원장이 이끄는 기술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명단을 밝혔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는 5개 소위원회(선임, 테크니컬스터디그룹 TSG, 정보전략, 스포츠과학, 스카우트)로 구성돼 총 18명의 위원들이 분야별로 대표팀을 지원하게 된다.

남녀 국가대표과 23세 이하 대표팀의 감독 선임 등을 결정하는 선임소위원회에는 최진철 프로연맹경기위원장, 노상래 전 전남 감독, 정재권 한양대 감독, 박건하 전 서울이랜드 감독, 김영찬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장, 국내에서 활동 중인 영국인 축구 칼럼니스트 스티브 프라이스가 선임됐다.

전력 분석을 담당할 TSG 소위원회는 협회 지도자 강사인 최승범, 김남표씨와 이경수 숭실대 감독, 서동원 고려대 감독으로 구성된다.

국제축구의 흐름과 정보를 취합하는 정보전략소위원회에는 마이클 김 FC안양 코치와 한준희 축구해설가, 백종석 동국대 코치가 참여한다.

피지컬, 의학, 영양 등에서 대표팀을 돕는 스포츠과학 소위원회에는 오성환 협회 피지컬 연구원, 윤영설 협회 의무분과위원장, 조성숙 한국운동영양학회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 선수의 발굴을 지원할 스카우트 소위원회에는 박동우 전 제주유나이티드 코치와 전성우 울산현대 강화부장이 선임됐다.

김판곤 위원장은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는 감독의 선임만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대표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제대로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젊고 활동적인 전문가들을 많이 배치했다"고 밝혔다. "감독 선임을 할 때에도 각 소위원회가 사전에 감독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기술발전위원회도 이날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우상범(안성비룡초 감독), 박창주(울산현대 U-12 감독), 신호철(부평동중 감독), 김영진(서울오산중 감독), 황득하(여의도고 감독), 주승진(매탄고 감독), 이장관(용인대 감독), 권무진(충주예성여고 감독), 주창화(호남대 교수), 최영준, 서효원, 차상광(이상 협회 전임 지도자)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윤성빈, 충천한 자신감…평창 '황제 대관식' 사실상 예고

"두쿠르스와 김지수 중 누가 더 신경쓰이느냐고요? 고민되네요. 이 말이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방에서 열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황제 대관식'을 노리고 있는 윤성빈(24·강원도청)이 1인자로 군림하던 마르틴스 두쿠르스(34·라트비아), 함께 올림픽에 나서는 김지수(24·성결대) 중 누가 더 신경쓰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황제 노릇을 하던 선수이자 윤성빈이 평창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넘어야 할 숙적인 두쿠르스를 특별히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다.

윤성빈은 지난달 31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지금까지 올림픽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차질없이 잘 준비해왔다고 생각한다. 자신감도 있다"며 "이번 올림픽에서는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 창 올 림 픽 이 들 어 있 는 2017~2018시즌 윤성빈은 거대한 산으로 여겨지던 두쿠르스를 넘어서는데 성공했다. 2016~2017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1~8차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세계랭킹 2위에 오른 윤성빈은 올 시즌 두쿠르스에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월드컵 1~7차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딴 윤성빈은 월드컵 8차 대회에 불참하고도 월드컵 랭킹 1위에 올랐다. 2009~2010 시즌부터 8년간 두쿠르스가 지켜온 월드컵 랭킹 1위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상비군들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북한 마식령스키장으로 훈련에 앞서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사진촬영 하고 있다.

이주태 스키훈련 단장 "남북 관계 중요…상호존중 자세"

"뜻 깊은 훈련…재미난 경험"

남북 마식령스키장 알파인·크로스컨트리 공동훈련 대표단 단장을 맡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지난달 31일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남과 북은 상호존중의 자세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하는 자세로 (행사)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서 방북(訪北) 출국에 앞서 마식령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은 합의대로 원활히 잘 진행하고 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의 우려를 잘 감안하고, 기대를 잘 고려하면서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며 "공동훈련은 일정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색다른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훈련에는 알파인·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후보(상비군) 선수가 각각 12명씩 모두 24명이 참가했다.

김현수(단국대·22·알파인) 선수는 "긴장되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일 거 같다"며 "친구들도 가고, 북한을 언제 가보겠냐는 생각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철(알파인) 코치는 "혹여나 문제가 있을까 조금 걱정도 되지만,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이) 훈련을 같이하는 거니까 뜻 깊은 걸 한다는 생각으로 참가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1일까지 이틀간 머물며 자유훈련과 공동훈련, 연습경기를 소화한 다음 동해 직항로를 이용해 북측 선수단과 함께 귀환할 계획이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